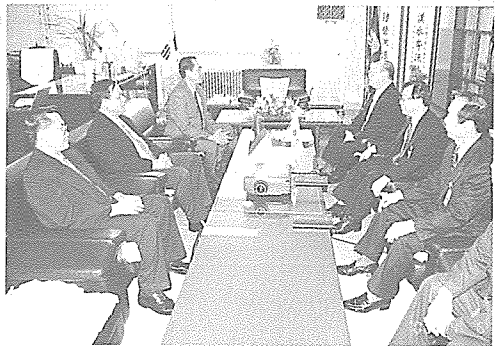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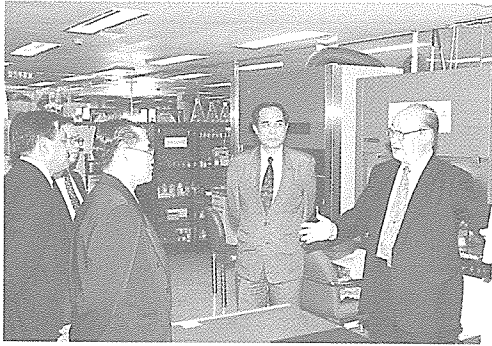


라오스 보건관계자 내한, 건협 방문

- 한·라오스 기생충 교류 5개년 사업의 일환



라오스 보건청차관 Dr. Bounkouang PHICHIT를 비롯한 라오스 보건관계자 3명이 지난 4월 5일부터 10일까지 내한, 건강관리협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건협의 각 지부를 방문하여 한국에서의 효과적인 기생충 퇴치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 라오스 국민을 위한 기생충 퇴치 사업에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라오스 보건 관계자의 이번 방문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NGO 사업으로 올해부터 5년에 걸쳐 실시되는 라오스 기생충 퇴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루어졌다.

라오스 기생충 퇴치를 위한 5개년 지원 사업은, 지난해 건협 임한중 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라오스를 직접 방문해 동 지역의 기생충 감염의 심각성을 접한 후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기생충 퇴치가 시급한 문제라는데 현지 보건 관계자와 뜻을 같이 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 실현된 것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루어졌던 중국 기생충 퇴치 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중국인 기생충 퇴치에 기여한 이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사업 기간 동안 건협은 KOICA의 지원 하에 우리 나라 기생충 전문가의 현지 파견, 기생충 검사 장비 및 구충제 지원, 현지 기생충 전문가에 대한 기술 전수 등의 지원 사업과 함께 현지 주민의 기생충 검사와 투약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건협 임한중 회장과 관계자들은 오는 5월 9일부터 19일까지 제 2차 라오스 현지 실사단을 파견해 비안티엔, 팍산, 사바나키트의 3개 지역 초등학교 1만여 명을 검사할 계획이다.

◀ 32



도 및 각 시·군 보건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충청남도 보건과 및 지부 사무국장을 비롯해 각 시·군 보건소 담당 계장, 실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1999년도 저소득층 암 검진에 대한 검진 실적과 결과 분석을 토대로 2000

년도 저소득층 암 검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광주·전남 지부, 민방위 대원 교육



광주·전남 지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광주·전남 지부 선승철 검진부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민방위 교육 실시 강사로 위촉되어 오는 5월 15일까지 '암의 예방 및 건강 관리'에 대한 강연을 실시한다.

이번 보건교육으로 민방위 대원들은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1회 금연 사진 공모전 자문 위원 1차 회의

- 유경선 중대 사진학과장 심사위원장으로, 오는 5월 12일 심사 결정



건협은 지난 4월 20일, 제 1회 금연 사진 공모전 심사 위원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모된 사진을 심사할 심사위원단과

운영위원을 결정하고 심사 일정과 심사 기준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심사위원은 중앙대 유경선 사진학과장을 심사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박용주 건강증진과장, 김형인 조

선일보 사진부장, 최병오 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건협 박준영 건강증진국장을 심사위원으로 사진작가협회 허

웅선씨(여행칼럼니스트) 등을 운영위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금연 사진 공모전의 심사는 오는 5월 12일 오후 1시부터 한국일보사 회의실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당선자 발표는 15일, 시상식은 5월 30일 건강박람회2000 행사장 건강배움터에서 가질 계획이다.

한편, 당선작에 대한 전시회는 박람회 행사장 입구인 한일 광장에서 박람회 기간 동안(5월 26일~6월 4일) 실시될 예정이다.

건협, 흡연실 실태 조사 실시

건협은 2천년도 국민 건강 증진 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흡연실 실태 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연세대 간호학과 김주형 교수와 조사표 개발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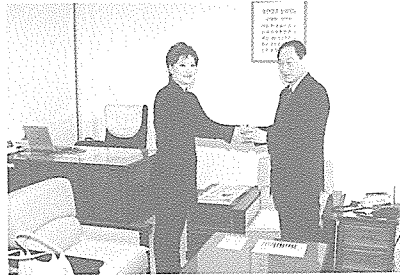
이번 흡연실 실태 조사는 오는 8월까지 서울시 주요 관공서, 예술 공연장, 대형 기업 건물, 각 대학 등 총 5개 영역의 흡연실(구역)의 설치 여부와 운영 실태, 이용자 및 비흡연자의 만족도 및 개선 방안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 조사 결과는, 앞으로 비흡연자 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건강 증진에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흡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의 구체화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협은 또,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기 청정기 등 흡연실에 필요한 장비를 국민 건강 증진 기금으로 구입·지원할 예정이다.

close-up

대전·충남 지부서 자궁암 선고받고 아들 출산한 삼영춘씨



신을 강행하여 99년 12월 건강한 아들을 출산한 삼영춘씨(대전시 서구 도마2동)가 아이의 백일을 맞아 지난 3월 28일 건협 대전·충남 지부를 다시 방문했다.

삼씨는, 당시 정확한 검진으로 자신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에 건강한 아이도 얻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대전·충남지부에 감사한다면서, 백일떡을 건협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정기 검진을 받았다.

한편 김치수 사무국장을 비롯한 대전·충남지부 직원



1998년 11월, 건협 대전·충남지부에서 자궁암 진단을 받고 자궁 적출 수술 대신 난소 한쪽을 잘라 내고 임

들도 삼씨 아이의 백일을 축하하는 뜻으로 작은 정성을 모아 백일 반지를 전달했다.